

해외 최신 의약뉴스

Azithromycin이 치명적인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편집인 남궁형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무정보팀장
(재)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FDA는 Azithromycin 복용환자에서 QT 간격 연장 및 Torsades de pointes 등의 치명적인 심장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키워드

Azithromycin, 심장 부작용, 부정맥, QT 간격 연장, Torsades de pointes

Azithromycin이 치명적인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Medscape Medical News, Mar 12, 2013]

3월 12일, 미국식품의약청(FDA)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있는 항생제인 Azithromycin(지스로맥스정, 화이자제약)이 불규칙한 심장 리듬에 관한 잠재적이며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는 QT 간격을 연장하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비정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드물게 Torsades de pointes라 알려진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FDA 발표에 따르면, Azithromycin 유발 부정맥에 위험성을 가진 환자는 이미 QT 간격이 연장되었거나, 저칼륨혈증, 저마그네슘혈증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느린 심박동을 가진 환자 또는 부정맥 치료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주로 나타나며, 노인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도 부정맥 유발 효과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Azithromycin에 대한 FDA 안전성 발표는 화이자 제약에 의해 수행된 심장의 전기 활동에 대한 항생제 효과에 관한 연구와 2012년 5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근거가 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5일동안 Azithromycin을 투여 받은 환자군은 Amoxicillin 또는 항생제를 투여 받지 않은 군에 비해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FDA는 Azithromycin의 제품설명서에 QT 간격 연장 및 Torsades de pointes에 대한 위험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추가하였고, 다른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뿐만 아니라 플루오로퀴놀론계와 같은 비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들도 QT 간격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원문링크

<http://www.medscape.com/viewarticle/780660>